

## 안용복사건의 재검토<sup>1</sup>

박병섭

### 1. 들어가며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에 도일하여 오늘날의 독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서는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거짓말쟁이였으며 정 반대였다.

한국에서 독도문제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알려진 신용하는 후대의 관찬서 『동국문헌비고』 등에 쓰여진 안용복의 공술을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 그를 독도의 수호자로 높이 평가했다.

이런 견해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안용복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하고, 그의 그릇된 증언이 조선 역사서에 받아들여져, 안용복의 영웅상이 형성됐다고 혹평했다. 또 한국에서는 양심적인 학자로 알려진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조차도 “한국과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안용복 연구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 취조한 비변사에서의 공술 내용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만 의존하고 있고, 상대 측인 돗토리 번(鳥取藩)의 사료(史料)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케우치 사토시(池内 敏)도 한국의 연구자는 일본 사료와의 대조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 연구자들은 신용하 등의 안용복에 대한 견해에 매우 비판적이다.

2005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의 일부 기록 「무라카미 가 문서(村上家文書)」가 오키(隱岐)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안용복사건의 연구가 한일간에서 활발하게 됐다. 본고는 그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안용복 평가의 문제점을 검증한다.

### 2.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

1693(숙종19, 元祿6)년 안용복은 울릉도로 출어하여, 거기서 일본에서 출어하러 온 오야(大谷, 大屋) 가와 만나, 그들에 의해 일본으로 연행됐다. 이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을 계기로 조일 양국간의 외교교섭, 쓰시마 번(対馬藩)이 이르는 ‘다케시마 잇겐(竹島一件)’, 조선정부가 이르는 ‘울릉도쟁계’가 시작됐다.

<sup>1</sup> 본고의 상세한 논고는 다음을 참조.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수산개발원, 2007; 박병섭, 「안용복사건과 돗토리 번」 『독도연구』 제6호, 2009.

그 당시 울릉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 오늘날의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렸으며, 오야·무라카와(村川) 양 가문은 에도 막부(江戸幕府)로부터 한번만의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얻어 그것을 앞세워 1625년부터 오랜 세월 다케시마로 출어하여 전복 등을 따다. 그러나 1692년에 이르러 울릉도로 먼저 갔던 조선인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 다음 해 1693년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오야 가는 생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선인 중 안용복과 박어둔을 연행하여 돛토리 번으로 넘겼다.

연행 당한 안용복 등은 도판1과 같은 경로를 거쳐 반년 후에 송환됐다. 그 도중, 오키, 요나고(米子), 나가사키(長崎), 쓰시마 등에서 취조를 받았다. 귀국 후 그는 동래부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그 때의 공술 내용은 일본에서의 기록과 크게 달랐다. 그 속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점을 검증한다.

### 1) 안용복은 돛토리 번의 서계를 받았는가?

연행사건에서 77년 후에 쓰여진 관찬서 『동국문헌비고』는 “호키(伯耆)주<sup>2</sup> 태수는 마침내 관백(關白)에게 품의하여 서계를 만들어 주면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적었다. 이 구절이 현재의 한국에서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있다. 그러나 연행사건과 같은 시기의 관찬서는 호키주 서계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숙종실록』은 3년 뒤의 기사 속에서 사건 직후에 안용복을 심문한 당시의 접위관 유집일의 말을 이렇게 적었다.

근년 동래에 봉사(奉使)했을 때에 안용복을 추문(推問)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호우키주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를 쓰시마 사람이 겁탈했다.”했는데, 이번 그가 호우키주에 정문(呈文)한 데에는, “쓰시마도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바치고 본국(本國)에 내보낸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에서 받겠다고 했다.”고 했으니, 전후에 한 말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쓰시마는 본디 속은(贖銀)을 와서 거둔 일이 없고, 임술 약조(壬戌約條)도 비밀에 관계되는데, 안용복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가 호우키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했다 하여 조선 땅이라 께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는 울릉도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

<sup>2</sup> 일본에서 호키주라는 용어는 없다. 하쿠슈(伯州) 혹은 호키노쿠니(伯耆國)가 옳다. 태수는 하쿠슈와 인슈(因州, 因幡國)를 통치하는 마쓰다이(松平伯耆守), 별명이 이케다 미쓰나카(池田光仲)이다. 메이지(明治) 시대에 되어 양주(國)는 일시적으로 돛토리 번으로 됐다. 이를 인용하여 본고에서는 양국을 돛토리 번이라 부른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해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숙종22.10.23).

안용복의 공술을 처음에 신용하지 않았던 것은 최고 권력자인 영부사(領府事) 남구만도 마찬가지였다. 남구만은 이렇게 말했다.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호우키주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쓰시마도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쓰시마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호우키주에 가서 정문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숙종22.10.13).



## 도판1 안용복의 제1차 도일 행보

한편, 일본 사료도 아래 안용복의 공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오키에서 「당인(唐人) 둘 중 통역의 말」, “다케시마(竹島)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땀다.”
- 돗토리 번 요나고(米子)에서 「조선인 구상서(口上書)」(실전됨), 다음 나가사키 공술서와 같음.
-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두 사람의 말」, “무루구세무(무릉도)는 일본 속의 다케시마인 줄 처음 알았다.” 이 때까지 안용복은 잘 접대 받아서 모든 것에 만족함.
- 쓰시마 번에서 「조선인 공술서」, “그 섬(무릉도)이 일본 땅인지 조선 땅인지 모른다. 일본에 가서 일본 땅이라고 처음 들었다.” 이 때 그는 죄인 취급 당함.

안용복의 공술서 뿐만 아니라, 돗토리 번의 공문서도 “앞으로 그 섬에 조선인이 오지 말도록” 에도 막부에 요청한 것을 기록했다. 이런 사료에서 이케우치는 “겐로쿠 6년 단계의 안용복 발언이나 태도에서는 일본 측에 대해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는 강한 의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sup>3</sup>고 주장했다. 이는 마땅한 결론이다. 결국 호키주의 서계를 쓰시마 번이 탈취했다는 안용복의 공술은 허언일 것이다.

## 2) 안용복의 독도 인식

안용복은 일본으로 여행 당하는 도중에 독도를 경유한 것 같다. 『인푸 역년 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은 오야 가의 배가 “새벽에 마쓰시마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했다.<sup>4</sup> 마쓰시마는 독도이지만, 안용복은 그가 본 섬이 우산도임을 몰랐으며, 귀국 후의 취조에서 “제가 잡혀 (호키주로) 갔을 때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저녁을 먹고 난 뒤, 섬 하나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도에 비해 자못 컸다.”고 말했다.<sup>5</sup>

안용복이 그 섬 이름을 몰랐던 것은 그의 쓰시마 번에서의 공술에서도 알 수 있

<sup>3</sup> 池内敏 「安龍福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第10号, 2008, p.19.

<sup>4</sup> 『因府歷年大雜集』 元祿5.7.24, 단 元祿5년은 6년의 잘못.

<sup>5</sup> 『邊例集要』 肅宗20.1.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안용복이 본 큰 섬을 오키도라고 주장했으나, 이 견해가 잘 못임은 무라카미 가 문서에서 확실하다.

다. 그는 “이번에 나간 섬의 동북에 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머물던 중에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하루 정도의 거리로 보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우산도를 멀리서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竹島紀事』元祿6.11.1). 안용복은 우산도의 방향을 울릉도 동북이라 했는데, 이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해변가에서는 볼 수 없고 울릉도에서 10km 이상 떠나야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우산도의 방향을 잘 못 본 것이다. 실제 방향은 동남동이다.

### 3.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 1)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느냐?

1696(숙종22, 元祿9)년, 안용복은 ‘조울 양도 감세장(朝蔚兩島監稅將)을 자칭하여 스스로 도일했다. 조울 양도는 울릉도와 자산(우산)도를 가리킨다. 제2차 도일 때의 행보는 도판2와 같다.



도판2 안용복의 제2차 도일 행보

안용복의 귀국후의 공술에 따르면, 그는 제2차 도일 때에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으니, 그 섬에서 일본인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마쓰시마까지 뒤쫓아 “마쓰시마는 자산도이며 거기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왜 사는가?”라고 일본인을 꾸짖었다고 한다(『숙종실록』 숙종22.9.25).

이 공술이 『동국문헌비고』 등에서 진실처럼 기술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에서는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안용복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일본 사료에는 1696년에 일본 어민이 울릉도로 도해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에도 막부는 그 해 1월에는 다케시마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여 도해를 금지했으므로 일본 어선은 다케시마로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본에서는 강하다. 그래서 앞에 쓴 바 안용복이 ‘제약의 근원’으로 보는 원인의 하나로 됐다. 사실의 해명이 필요하다.

최근의 나이토 등의 연구에 따르면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에게 도해금지령이 전해진 때는 1696년 8월이므로, 그 해 봄에는 양 가문은 도해 금지를 몰라서 출어

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해 양가는 출어하지 않았으며 울릉도에서의 조일 양국 어민의 만남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안용복이 그 때에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면, 그 며칠 후에 행해진 오키도에서의 취조에서 안용복은 일본인과의 만남에 대해 무언가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 등의 언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평가되는 무라카미 가 문서에 따르면, 그 때에 안용복 등은 호키로 갈 예정이었는데 바람 관계로 오키에 왔다고 공술을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1696년에는 일본인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의 실정을 보도라도 도해는 없었을 것이다. 양 가문은 1692년과 1693년에는 울릉도에서 조선인과의 조우로 인해 거의 수확이 없었으며, 1694년에는 날씨 악화로 인해 울릉도로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하며, 1695년에는 돛토리 번에서 예년의 자금 보조를 끊어진 상태에서 출어했으나 울릉도에 역시 많은 조선인이 와 있었으므로 어업을 포기하고 돌아왔다.<sup>6</sup> 재정적으로 곤란한데다가 가령 1696년에 출어해도 조선인 때문에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그 해는 조선인 문제의 행방을 지켜보고 출어하지 않았을 것이며, 도해의 기록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안용복이 1696년에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난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이 1695년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1695년에 울릉도에서 조일 양국의 어민이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필자는 그 속에 안용복이 있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 첫째 이유는 안용복의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인식이다. 그는 1693년 및 다음 해에는 마쓰시마(우산도)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앞에 쓴 것처럼 쓰시마 번에서 겨우 울릉도 동북쪽에 우산도를 두 번 아주 멀리서 보았다고 말했을 뿐, 연행 도중에 우산도(마쓰시마)를 실제로 보아도 그 섬 이름조차 몰랐던 정도였다.

그러나 1696년에는 울릉도와 자산도가 그려진 「조선팔도지도」까지 지참하여 도일하고, 오키에서는 관리에게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자산도라고 명백히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는 50리(200km)이고, 5월 15일에 다케시마, 16일에 마쓰시마를 출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안용복은 어디에서 얻었을까?

특히 마쓰시마의 이름은 그의 제1차 도일 때나 조일 양국의 울릉도쟁계 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조선에서 마쓰시마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sup>7</sup> 따라서 안용복이 마쓰시마 이름을 아는 것은 일본인과의 접촉 외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 기회가 1695년 울릉도에서의 일본인과의 만남이라고 추정된다.

<sup>6</sup> 『竹島之書附』 「竹島之書附三通、その二」; 『竹島考』.

<sup>7</sup> 『疆界考』에 「愚按 輿地志云 一説于山嶺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一則倭所謂松島」는 저자인 申景濬의 견해이며, 안용복사건 이후의 지식이라 생각된다. 자세한 논고는, 박병섭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2)」 『獨島研究』 第7号.

두 번째 이유는 1696년 도일 때의 동기이다. 『숙종실록』이나 『동국문헌비고』에 따르면 그는 쓰시마 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노하고 있었다.

- (1) 울릉도쟁계 교섭 때, 쓰시마 번이 조선의 서계에서 ‘울릉도’를 삭제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고 에도 막부에게 공을 세우려는 쓰시마 번의 계책이다.
- (2) 쌀이나 옷감 등 조선이 지급한 물건의 단위를 속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 (3) 그의 제1차 도일 때는 에도 막부의 배려 덕분에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나가사키에서 쓰시마 번으로 넘겼을 때부터 죄인으로 취급 당했다.

쓰시마 번에 대한 분노를 금하지 못할 안용복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의 1695년의 울릉도 도항은 쓰시마번의 ‘기만’ 과 ‘계책’ 이 계속된 결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 때문에 쓰시마번에 대한 의분을 더 격화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아예 해금의 중죄를 각오하여 일본으로 도항하고, 돛토리 번에 소송할 것을 결심했다고 짐작된다. 그래서 지도 등을 준비하여 다음 해 1696년에 도일을 실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의 가설로써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낸 일은 1696년의 일이 아니라 1695년의 일이라고 고찰한다. 이와 부합할지 『죽도고(竹島考)』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다케시마에서 조선인들이 이쪽의 배를 보기만 하면, 큰 총을 쏘 대어, 해안 근처에는 갈수가 없다고들 한다.”고 적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어민들은 1693년에 안용복과 박어둔이 아마 총칼로 위협받아<sup>8</sup>, 일본 배에 연행된 씁쓸한 경험이 있으니, 조선 배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일본 배의 습격에 대비하여 무장했을 것이다. 아마 『죽도고』의 기술은 1695년에 안용복이 일본인을 울릉도에서 쫓아낸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1696년에 관해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되는 무라카미 가 문서에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는 기술이 전혀 없으므로, 일본인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 2) 안용복의 도일 목적 및 정문(문文)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호소하는데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이케우치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안용복의 목적은 3년

---

<sup>8</sup> 『邊例集要』卷17「鬱陵島」条, 갑술(1694년) 8월



전에 쓰시마 번에서 받은 냉대를 호소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sup>9</sup> 그러나 3년이나 전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해금 위반의 중죄를 범하여 도일했다는 것은 그 동기가 너무 약하다. 이에 관한 검증을 시도한다.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그가 돛토리 번에 제출한 소장(訴狀)에서 알 수 있을 터인데, 이 소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소장을 낸 것은 조일 양국의 교섭에서 쓰시마 번이 “지난 가을에 귀국의 사람이 정단(呈單)을 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동래부는 “만약 분변할 일이 있다면 역관에게도 보낼 터인데, 무엇을 꺼려하여 어리석고 미친 포민(浦民)을 보내겠는가”<sup>10</sup>라고 대답한 위에 서간으로 “그 정서(呈書)는 망작(妄作)의 죄가 있다.”<sup>11</sup>고 적었으므로 확실하다.

한편, 돛토리 번의 『고요닌 일기(御用人日記)』(6/22)에 따르면 에도에 있는 돛토리 번저(藩邸)가 막부의 로쥬(老中)에게 “자세한 구상서 및 조선인서기(朝鮮人書記)를 제출”했는데, 이 ‘조선인서기’가 안용복의 소장인 듯하다. 이 소장은 그들이 오키에 체재하는 동안에 농가를 빌려서 청서한 것이며, 이케우치에 의하면 오키국의 관리는 그 초안을 보고 소장의 내용을 장악하고 있었다.<sup>12</sup> 오키 당국자는 이런 사정을 돛토리 번에게 연락했으며, 돛토리 번은 이 사실을 “오키국으로부터 전해 온 것은 (조선인들이, 필자 주) 다케시마에 관한 소송으로 왔다는 뜻을 말한 일의 연락”<sup>13</sup>이라고 기록했다. 소장의 초안을 아는 오키 당국자는 안용복 등이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소송으로 왔다고 이해하고 돛토리 번으로 연락한 것이다.

그러나 돛토리 번의 유학자인 쓰지 반안(辻晩庵)이 실제로 안용복 등과 필담을 했으니, (A)예상 밖으로 “그다지 다케시마 소송 같지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에도에 있는 돛토리 번저 유수거역(留守居役)의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가 쓰시마 번과 회담을 가지고 설명한 바에 따르면, (B)돛토리 번으로 온 안용복은 전에 쓰시마 번에서 줄에 묶였던 일 등 자꾸 쓰시마 번의 일만 말했다고 한다. 이 두 점 (A), (B)에서 이케우치는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쓰시마 번의 냉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다케시마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이케우치는 오키국이 돛토리 번으로 보낸 서한, 즉 안용복이 다케시마 소송으로 일본에 왔다는 내용의 서한을 간과한 것 같다. 그 서간을 고려한다면 다케시마에 관한 일을 호소하는 것도 안용복의 도일 목전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첫째 문제는 쓰지 반안의 소감인데, “그다지 다케시마 소송 같지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는 결코 다케시마 소송의

<sup>9</sup> 池内敏「隠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鳥取地域史研究』第9号、2007.

<sup>10</sup> 『肅宗實錄』肅宗23.2.14.

<sup>11</sup> 『竹島紀事』元祿11.4.

<sup>12</sup> 池内敏、前掲論文、p.7.

<sup>13</sup> 『御用人日記』元祿9.6.22.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다케시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회담에서는 쓰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케시마 문제는 간단히 끝났고, 필담의 주고받음은 주로 내용이 복잡한 쓰시마 번의 기만과 계책의 설명에 대한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다음 문제는 돗토리 번의 요시다와 쓰시마 번의 회담이다. 요시다는 쓰시마 번에 대해 그와 로쥬(막부의 최고 실무 책임자)와의 회담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즉 돗토리 번은 안용복이 대체로 일본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쓰시마 번의 일을 말하기 어려우니, 로쥬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통역의 과견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sup>14</sup> 만약 로쥬에게 거짓 설명을 한 것이 탄로나면, 아마 요시다는 엄한 추궁을 면하지 못한데, 왜 요시다는 아예 위험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는 돗토리 번은 안용복이 말하는 쓰시마 번의 기만이나 계략을 로쥬나 쓰시마 번에 왜 바로 설명하지 않았는가는 의문에 이어진다. 그 이유는 봉건 통치 체제의 특성에 있을 것이다. 에도 막부는 반세기 전부터 각 번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각 번의 약점을 잡아 재배치 등을 실행해 왔다. 그런 시기였으니, 돗토리 번은 남의 나라(쓰시마)의 약점을 폭로하고 나 남의 나라의 심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언동을 피하려고 한 것일까?

돗토리 번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 번의 소속이 아니었고, 그 해 1월에는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 내려져서 다케시마문제는 마무리됐다. 그럴 때 안용복이 갑자기 돗토리 번으로 왔다. 돗토리 번의 관심사는 오로지 안용복에 대한 대처뿐이었는데 그 문제 해결에는 조선어 통역의 과견으로 쓰시마 번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돗토리 번으로서는 안용복이 말하는 쓰시마 번의 기만이나 계책을 막부나 쓰시마 번으로 설명하는 것은 쓰시마 번의 사정을 탐색하기 마련이므로 쓰시마 번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요시다는 그것만은 피하려고 쓰시마 번에 대해 말을 아껴, 아무 지장이 없는 화제를 골라서 말했다.

그런데 요시다는 쓰시마 번에게 안용복이 “자꾸 쓰시마 번의 일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쓰시마 번의 일”에는 다케시마 문제가 포함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안용복은 쓰시마 번이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에도에 공을 세우려고 계책을 실현 중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서에서 알 수 있는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아래 사항을 호소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 (1) 쓰시마 번이 에도 막부의 뜻에 어긋나서 안용복을 줄에 묶어 확대한 일.
- (2) 쓰시마 번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려는 계책.
- (3) 기타 쓰시마 번의 여러 기만적 행위.

---

<sup>14</sup> 『竹島紀事』, 元祿9.6.23.

한편, 조선 사서인데, 승지 유집일이 말한 안용복의 정문 내용은 앞에 쓴 바, “쓰시마도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바치고 본국(本國)에 내보낸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에서 받겠다고 했다.” “울릉도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등인데 이는 안용복의 공술을 말했을 뿐이며, 바로 그냥 믿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문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안용복의 공술을 둘러싸고 한일간에서 큰 견해차가 있으나, 그 중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제1차 도일 때 안용복은 호키주로부터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땅으로 정한 서계를 받았다고 공술을 했으나, 이는 그의 허언일 것이다.
- (2) 제1차 도일 때 안용복은 자산도(우산도)를 경유했으나, 그 사실을 그는 몰랐으며, 자산도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 (3) 제2차 도일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산도까지 뒤쫓았다고 공술했으나, 무라카미 가 문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므로 1696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 전 해인 1695년에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나 그들을 쫓아낸 가능성이 있다.
- (5)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의 목적을 이케우치 사토시는 그가 쓰시마 번에서 받은 냉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울릉도의 소송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시마 번의 냉대 외에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려는 계책이나 쓰시마 번의 여러 기만적인 행위를 호소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었다.